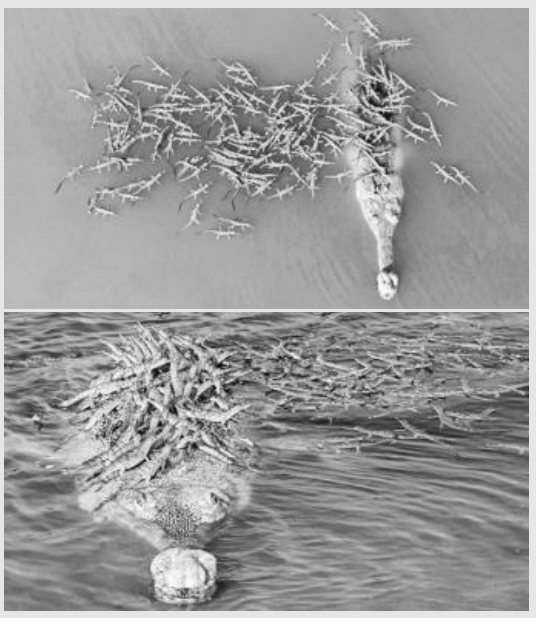
수십 마리 새끼 돌보는 수컷 악어



▲ 사진=영국 자연사박물관

커다란 수컷 악어 한 마리가 수십 마리에 달하는 새끼 악어를 돌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화제다.

지난 1일 영국 자연사박물관은 2020년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 상의 후보작을 공개했다. 이 사진도 그 사진들 가운데 하나다.

영국 자연사박물관에 따르면, 사진작가 드리트먼 무커르지가 인도 북부 우타르푸라데시주에 있는 국립 참발 보호구역에서 가비알 악어 무리를 촬영하던 중 포착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사진 속 성체 악어가 앞서 밝혔듯이 수컷이라는 것이다. 가비알 악어의 성체 암컷의 몸길이는 보통 2.6~4.5 m이며, 수컷은 이보다 크게 자라 3m~6m까지 자란다.

사실 가비알 악어는 여러 마리의 암컷이 새끼들을 함께 돌보는 공동 육아를 하는데 같은 무리의 수컷들이 육아에 동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악어 종 중에서는 유일한 경우다.

특히 우두머리 수컷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심지어 이전 우두머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우두머리가 된 수컷 악어가 이전 우두머리가 돌보던 새끼들까지 그대로 돌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작가 상은 1964년부터 영국 자연사박물관이 매해 개최하고 있으며, 한해 3만 점이 넘는 출품작을 받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진 공모전이다.

올해의 수상작은 오는 10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추락 위기 어린이 구한 남성

중국에서 아파트 6층에 매달린 어린이를 온몸으로 지탱해 구조한 남성이 영웅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14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6살 남자아이가 아파트 창살에 끼여 추락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집에 홀로 있던 이 아이는 창문 난간에서 장난을 치다 발을 헛디뎠다. 난간 사이에 몸이 끼인 아이는 추락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매달렸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위층에서 살고 있는 40대 퇴역군인 남성이 이 모습을 보고 재빨리 5층을 내려가 외벽을 타고 아이가 매달린 6층 난간에 접근했다. 그리곤 5층 차양에 쭈그리고 앉아 한쪽 팔로는 난간을 붙잡고 다른 쪽 팔로는 아이를 들어 올려주었다.

하지만 난간 사이가 좁아 아이는 빠져나갈 수 없었다. 서서히 힘이 빠진 남자는 한쪽 어깨로 아이를 지탱한 채 구조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뛰어든 터라 자칫 두 사람 모두 추락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이 남성은 몸무게 30㎏에 달하는 아이를 자시의 어깨로 받치고 1시간을 버텼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난간 구조물을 제거한 뒤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

▲ 사진=SBS뉴스 화면 캡처

구조대 관계자는 "만약 남자가 아이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난간 사이에 목이 끼여 질식사할 수도 있었다." 라고 말했다.

'노마스크' 벌금 안 내려고 개 흉내 낸 남성들

▲ 사진=나우뉴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과 마주친 스페인 남자들이 개 흉내를 내며 벌금을 모면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스페인 아스투리아스의 캉가스에서 최근 벌어진 일이다.

캉가스 경찰은 순찰 도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길을 걷는 두 명의 남자를 발견했다. 최근 2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스페인에선 외출 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이 남자들을 멈춰 세우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자 두 사람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한 남자가 갑자기 두 손으로 바닥을 짚더니 길에서 기어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본 또 다른 남자도 바로 친구를 따라 기어 다니면서 개가 짖는 소리를 냈다. 이 남자는 심지어 한쪽 다리를 쳐들고 개가 오줌을 누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황당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는 경찰에게 두 사람은 "우리는 개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고 소리쳤다.

멀쩡한 남자들이 길에서 흉내를 내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동안 이런 행동을 계속했다. 두 사람은 결국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혼란 유발, 공권력에 대한 모욕, 마스크 착용 거부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처벌하기로 했다.